

히브리어 중심의 이스라엘 언어 정책

권성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

1. 머리말

이스라엘의 언어 정책을 말하기에 앞서 우선 ‘이스라엘인’이라는 말과 ‘유대인’이라는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은 국가적, 영토적 개념에서 사용하는 말이며, 유대인이라는 말은 민족적 개념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이스라엘인이란 이스라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킨다. 2015년 4월 이스라엘 통계청에서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¹⁾ 이스라엘에는 834만 5,000명의 이스라엘인이 있다. 이스라엘인 중에는 625만 1,000명의 유대인과 209만 4,000명의 본토 아랍인²⁾이 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시민권이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³⁾과, 베두인과 드루즈 족과 같은 특수 종족은 그 통계에서 제외

1) 이스라엘 통계청 웹사이트 www.cbs.gov.il/engindex.htm

2) 본토 아랍인이란 이스라엘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아랍인들을 말한다.

3) 팔레스타인(Palestine)이란 말은 고유명사이므로 ‘팔레스타인인’이라고 해야 하나 어감을 고려하여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부르기로 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사이에서 발발한 6일전쟁(1967년 6월 5~11일)에서

되어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5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에는 ‘히브리어’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약 625만 명이고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 490만 명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공용어는 히브리어와 아랍어이다. 이 두 언어는 민족과 국가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종교와 정치, 역사적 관점에서 복잡 미묘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영토의 3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좁은 땅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긴장은 이스라엘의 언어 정책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 현재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도권이 유대인들에게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언어 정책을 논할 때 이스라엘의 양대 공용어인 히브리어와 아랍어 중 주도권은 히브리어에 있으며 아랍어는 종종 소외된다는 것이다.

2. 이스라엘 땅에서 히브리어와 아랍어의 역사적 배경

2.1. 히브리(유대) 민족과 히브리어의 역사적 배경

히브리(유대)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3200년경 최초의 문자인 수메르 문자를 사용한 수메르인들의 수도인 ‘우르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이다.

4)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최초의 이스라엘인들을 히브리인이라 불렀으며 유대인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긴 후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스라엘과 유대라는 말이 사용되기 전에 가장 먼저 사용된 말이 히브리인이었으므로 그들이 사용한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부르며 유대어나 이스라엘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시대가 지나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 히브리인 대신에 유대인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Ur)' 출신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 사용했던 언어는 수메르어가 아닌 아카드어였다. 최초의 언어인 수메르어는 한국어, 몽골어, 투르크어와 동일한 알타이어에 속한 언어⁵⁾이나 아카드어는 셈어(Semitic Language)에 속해 있으며 최초의 셈어라 할 수 있다.

정확한 시기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 사용한 언어를 히브리어의 시초로 본다. 히브리어와 아랍어는 모두 셈어에 속한다. 히브리어는 북서부 셈어에 속하며 아랍어는 남부 셈어에 속한다. 수메르어나 아카드어와는 달리 히브리어와 아랍어는 모두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이며 동일한 기원을 갖는다.

알파벳의 기원은 기원전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스라엘 지역인 세겜, 게젤, 라기스 등에서 발견된 것이 '원시 가나안어(Proto-Canaanite)'로 불리는 최초의 알파벳이다.⁶⁾ 최초의 알파벳 문자를 창안한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상형문자에서 알파벳 문자로의 전환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영어를 포함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은 거의 대부분이 원시 가나안어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고전 아랍어를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Koran, 꾸란(Qur'an))의 언어로 연결시키는 것처럼 고전 히브리어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5) 수메르어와 알타이어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서는 여러 글이 있다. 다음을 참고해 보라. 김상일, 《수메르어와 한국어의 수사비교》, 가나출판사, 1987; 박기용, 수메르어 격체계 대조분석, 《언어학》 16호, 81~120, 1993; 조철수, 수메르어, 국어 고어 문법범주 대조 분석, 《언어학》 19호, 357~374, 1996; 권성달, "to be"에 상응하는 우리말과 여러 언어에서의 비교연구, 《언어학》 제16권 2호, 69~91, 2008.

6) Naveh, J., *Early History of the Alphabet*, Jerusalem: the Magnes Press, 26~27, 1987.

성서 히브리어로 연결시킨다. 성서 히브리어의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는 힘들지만 대개 세 시기로 나누는데, 고대 성서 히브리어(기원전 1000년 이전), 표준 성서 히브리어(기원전 1000~586년), 후기 성서 히브리어(기원전 586~약 200년)이다.⁷⁾

이스라엘에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나일 강과 같은 큰 강이 없어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와 같은 거대 문명이 싹트지 못했다. 지리적으로 두 문명 사이에 위치해 있던 이스라엘은 항상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야만 했다. 아시리아(Assyria, 기원전 722년)로부터 시작하여 바빌론(Babylon, 기원전 586년), 그리스(기원전 333년), 로마(기원전 63년) 등의 순서로 이스라엘을 점령했다. 그래서 고대부터 이스라엘은 이미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였다. 예수의 십자가에 있었던 죄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가 히브리어, 로마어, 그리스어의 삼중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고대로부터 다중 언어를 사용했던 것은 정치, 국가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실상 이스라엘은 단일 언어 국가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던 7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32~135년 사이에 있었던 제2차 반란이 실패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고 이후 본격적인 디아스포라⁸⁾ 시대가 시작된다. 그때부터 약 1,75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국어인

7) Kutscher, E. Y.,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Jerusalem: the Magnes Press, 12, 1984.

8)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확산, 분산(dispersion)’을 뜻하는 그리스어이며 성경(신명기 28장 25절)에서 유래한 말이다. 오랫동안 살고 있던 땅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 흩어져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거의 고유명사와 같이 사용된다.

히브리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존재했다.⁹⁾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도 성서 히브리어와 미슈나 히브리어¹⁰⁾는 종교적, 전통적인 용도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 비록 히브리어를 일상생활 언어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책의 민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읽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종교, 철학, 자연 과학, 시, 희곡, 여행, 역사 등에 관한 방대한 서적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유대인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편지나 문서 등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사람도 있으며, 경건한 유대 종교인들은 안식일에는 오직 히브리어로만 말을 하기도 했다.

히브리어가 일상생활 언어로 부활하게 된 것은 러시아계 유대인인 ‘엘리에제르 벤예후다(Eliezer Ben-Yehuda, 1857~1922)’라는 사람에게 의해서이다.¹¹⁾ 벤예후다는 테오도르 헤르츨(Theodor Herzl, 1860~1904)과 더불어 이스라엘 건국에 중요한 공헌을 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헤르츨은 시온주의의 아버지라 불리고 벤예후다는 현대 히브리어

9) 이러한 이유 때문에 히브리어는 오랜 기간 동안 ‘사어’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견해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우선 그 기간 동안 출판된 책만 해도 수만 권이나 된다. 또한 오직 구어(口語)에서만 언어의 발전과 성장이 있을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계속 발전해 왔으며 풍부한 어휘력의 형성, 새로운 단어의 출현, 각 시대를 대변하는 새로운 단어들의 등장 등을 살펴볼 때 히브리어는 사어였다고 보는 견해는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10)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록된 율법과 구전 율법으로 나눈다. 기록된 율법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구약성서》와 동일하며 구전 율법은 오랜 기간 동안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을 책으로 만든 것으로 《미슈나》라 부른다. 《미슈나》와 관련된 랍비들의 유대교 문헌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를 ‘미슈나 히브리어’라고 부른다. 미슈나 히브리어의 사용 시기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기원전 2세기~기원후 4세기경으로 본다.

11) 벤예후다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히브리어아카데미(The Academy of the Hebrew Language)의 웹사이트(<http://hebrew-academy.huji.ac.il/English/Pages/Home.aspx>)를 참조했으며 필자의 책(《성경 히브리어 올판》, 목양, 2015)을 참조했다.

의 아버지라 불린다. 1881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베예후다는 1882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30년간 신문사에서 편집인으로 근무한다. 그는 모든 시대의 히브리어 문헌에서 단어를 발췌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새로운 히브리어 단어를 만드는 등 사전 편찬을 준비한다. 그는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 마침내 《고대 및 현대 히브리어 사전》을 편찬한다. 그는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일상생활 언어로 히브리어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첫째, 사람들은 집에서 그의 가족과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것, 둘째, 히브리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교육 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현대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언어로 부활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인종 시장이라 부를 만큼 세계 각국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유럽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단일 민족이라 보기 힘들다. 그러나 출신지에 상관없이 그들은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약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은 것도 기적이라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일상생활 언어로 사용하지 않던 히브리어를 다시 일상생활 언어로 부활시킨 것 역시 기적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 것은 성서 히브리어였다. 현대 히브리어는 기본적인 어휘와 문법을 성서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왔다. ‘올판’이라 불리는 현대 히브리어 교습소에서 뽑은 필수 단어 1,000개 중 800개가 성서 히브리어 단어이다. 신문 분석가에 의하면 신문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60~70%가 성서에서 발견되며 20%만이 미슈나 히브리어에서 발견되고 중세 혹은 현대 히브리어 자체의 어휘는

매우 소수만이 발견될 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현대 히브리어는 적어도 3,0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진 언어이며, 고대 히브리인들이 기록했던 성서 히브리어와 어휘와 문법에서 80% 이상 유사성이 발견되는,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언어라 할 수 있다.

2.2. 이스라엘 땅에서 아랍어의 역사적 배경

이스라엘 땅이 로마 시대(기원전 63~330년)와 비잔티움 시대(330~638년)를 거친 후 아랍인들의 지배 체제로 들어선 것은 638년 아랍 칼리파가 야르묵(Yarmuk) 전투에서 비잔티움 제국을 격파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아랍어는 이스라엘 국가가 건립되던 1948년까지 1,300년 이상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배적인 언어의 위치에 서게 된다.

본토 아랍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베두인 그리고 드루즈 족들이 사용하는 아랍어는 어휘와 문법과 억양 등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아랍어는 이들뿐 아니라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수많은 방언이 있고 구어체로서 아랍어는 지역에 따라 동일한 아랍어라도 차이가 심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 등에서 사용되는 표준 아랍어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서 사용하는 고전 아랍어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대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882년부터 이스라엘로 이민 온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이 사용하던 아랍어는 출신지에 따라 이라크 계통, 모로코 계통, 트리폴리타니아 계통, 예멘 계통 등 다양한 아랍어 방언이었다.

3. 다양한 상황 속의 이스라엘 언어 정책

3.1. 다중 언어 국가인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1882년부터 전 세계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다중 언어 사회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약 40개 이상의 언어가 이스라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스라엘 통계청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해인 1948년의 인구 분포는 유대인 90만 1,000명, 아랍인 15만 8,000명, 합계 105만 9,000명이었다. 1882년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은 불과 2만 5,000명이었다. 유대인들의 이주는 개인적이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지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

- 1차 이주: 1882~1903년, 2만~3만 명
- 2차 이주: 1904~1914년, 3만 5,000~4만 명
- 3차 이주: 1919~1923년, 3만 5,183명
- 4차 이주: 1924~1931년, 8만 1,613명
- 5차 이주: 1932~1938년, 19만 7,235명
- 6차 이주: 1939~1945년, 8만 1,808명
- 7차 이주: 1946~1948년, 5만 6,467명
- 독립 이후 법적 이주: 1948~2014년, 315만 2,146명

12) 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Immigration/Immigration_by_Period_and_Continent.html;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Immigration/Immigration_to_Israel.html 참조.

이스라엘로 이주해 온 유대인들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왔으며, 그중 구소련에서 이주해 온 이들이 가장 많다(약 100만 명). 그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1934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에티오피아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들은 암하라어와 티그리냐어를 사용한다. 동유럽에서 이주해 온 연로한 이민자들과 정통파 유대 종교인들은 이디시어¹³⁾를 사용한다. 또한 유럽에서 온 유대인들은 프랑스어, 헝가리어, 독일어, 폴란드어 등의 유럽어를 사용하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유대인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그리스와 레반트(동부 지중해 및 섬들과 연안 제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유대화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북아메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온 유대인들은 영어를 사용한다. 이라크와 이란에서 온 유대인들은 유대화된 아랍어(쿠르드어)를 사용하고 북아프리카,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예멘과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아랍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중 언어 사회임을 알 수 있다.

3.2. 이스라엘의 언어 교육 정책과 아랍어의 지위

유엔(UN)의 영국 위임 통치 기간(1917~1948년) 중 1922년 8월에 의회에서 통과된 법령 82조에 의하면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법적인 통지는 영어, 아랍어, 히브리어를 사용하도록 명시한다. 영국 위임

13) 이디시어란 동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로 히브리어 문자를 사용했으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만 완전한 히브리어가 아닌 게르만어와 많이 혼합되어 있으며 슬라브어의 특징까지 혼합된 독특한 언어이다.

통치 기간 동안에 아랍어는 제1언어였고 영어가 제2언어였으며 히브리어와 이디시어는 소수 언어에 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는 영어, 아랍어, 히브리어였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이스라엘 입법부는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를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채택하였다. 히브리어뿐 아니라 아랍어도 교육 기관에서 교육 언어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듬해인 1949년 교육부와 문화부는 아랍인을 위한 교과 과정과 교과서를 편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 그 결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아랍어를 교육 언어로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아랍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히브리어를 교육 언어로 채택해야 한다.

1989~1995년 사이에 구소련에서 약 60만 명의 이민자들이 몰려옴에 따라 1995년과 1996년에 이스라엘 교육부에서는 새로운 언어 정책을 제정해¹⁴⁾ 이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도록 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학생들은 암하라어, 이디시어, 스페인어, 독일어도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각 출신지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민자들은 이스라엘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사용했던 출신지의 언어가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쉬웠다. 이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은 그들의 가족 관계뿐 아니라 학생과 학교, 학생과 부모, 부모와 학교의 관계를 좀 더 잘 유지할

14) 1995~1996년의 새로운 언어 정책에 관한 자료는 텔아비브에 있는 바르일란 대학교의 언어 정책연구센터(Language Policy Research Center)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PDF 문서(Shaul, M., Teaching New Immigrants Their Mother Tongue As A Way To Ease The Problems of Immigration and Adolescence, 2008)와 히브리어아카데미(The Academy of the Hebrew Language)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다. 또한 언어 정책에 관한 여러 글은 그 두 단체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다.

수 있게 되었다.

법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공용어는 히브리어와 아랍어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히브리어가 거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고 아랍어는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다. 공공장소나 정부 기관의 사무실에서는 아랍어가 종종 무시된다. 광고, 매체, 언론, 법적인 절차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에 히브리어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적인 이스라엘 텔레비전 채널과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아랍어 프로그램을 거의 방송하지 않는다.

아랍어를 이스라엘에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 2011년 8월 3일 이스라엘 국회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만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아랍어는 공식 언어에서 폐지하자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새로운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2014년 초 이스라엘 교육부 장관인 샤이 피론(Shai Piron)은 이스라엘 학교에서 아랍어 수업 시간을 단축하는 안을 발표했다. 곧 실행될 그 개정안에 따르면 이스라엘 학생들은 7~9학년까지만 아랍어를 공부하게 되어 1년이 단축된다. 2013년에는 40개의 고등학교에서만 10학년까지 아랍어를 공부했으며 200개 이상의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두었다.

아랍어의 언어 교육에서 당면한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는 문어체 아랍어와 구어체 아랍어 사이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¹⁵⁾ 아랍 학교에서는 문어체 아랍어만 사용하도록 결정하였지만 실제로 학교 교실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구어체 아랍어로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혼란이 빚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아랍어의 지위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15) 일반적으로 아랍어라고 하면 세 종류의 아랍어를 말하는데 고전 아랍어와 현대 표준 아랍어와 구어체 아랍어이다. 현대 표준 아랍어는 고전 아랍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둘을 문어체 아랍어라고 한다. 문어체 아랍어는 어휘와 문법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아랍인들조차 배우기 힘들어한다.

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언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아랍어 학회가 없다.

한편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랍어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도 없지 않다. 마카비 건강 서비스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들의 건강 서비스를 러시아어와 아랍어로도 제공하기로 했다. 1999년 이스라엘의 소수 민족의 권리를 위한 법적인 기관인 ‘아달라’는 특별한 청원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악고, 텔아비브-야포 등과 같이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에서 도로나 거리 표지판에 히브리어뿐 아니라 아랍어도 기록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그 청원을 받아들여 아랍인의 인구가 6% 이상인 지역에서는 표지판에 아랍어를 넣을 것을 결정했다.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도로 표지판은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1년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40명의 교직원들이 캠퍼스 안에 아랍어 표지를 추가할 것에 대한 청원서에 서명했다. 2012년 나사렛 대학에서는 공공 언어 정책과 성취에 대한 연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스라엘 고등 교육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아랍어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약세에 머물러 있는 아랍어에 대한 지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3. 히브리어에 대한 이스라엘의 언어 정책

이스라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유대 민족의 유일한 모국어는 히브리어이다. 히브리어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회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사회이다.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유대인 이민자들은 대부분 현대 히브리어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편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히브리어를 배우는 일이다.

이스라엘 교육부는 ‘올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교습소를 두어 이 일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올판은 5개월 과정이며 1주일에 25~28시간, 총 400~500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노인들을 위해 1주일에 12시간 10개월 프로그램도 있다. 기본적인 올판 외에 키부츠¹⁶⁾에서 운영하는 키부츠 올판도 있고 기본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위한 고급 과정을 제공해 주는 고등 올판도 있다. 대학 교육은 모두 히브리어로 이루어지므로 대학 교육을 위한 대학 올판도 있다.

또한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올판도 있다. 현재 유대인들의 총 수는 약 1,420만 명이며, 그중 이스라엘에는 약 625만 명이, 해외에는 약 800만 명(그중 약 680만 명이 미국에 거주)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를 교육하는 올판은 유대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장소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히브리어 올판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전 세계에 350개의 지부를 가진 유대인공동체센터(Jewish Community Center), 네페쉬 베네페쉬(Nefesh B’Nefesh) 등의 단체를 통해 주로 운영된다.

히브리어에 대한 이스라엘의 언어 정책을 이끌어 가는 주된 기관은 히브리어아카데미(The Academy of the Hebrew Language)이다. 이 아카데미는 1949년에 창립되었고 1953년에 법인 기관이 되었다. 엘리 에제르 벤에후다가 1905년에 창립한 언어협회(The Language

16) 키부츠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함께 일을 하며 함께 모여서 사는 유대인 공동체 마을을 말한다.

Committee)가 이 아카데미의 전신이다. 히브리어아카데미는 모든 시대의 히브리어 어휘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히브리어의 역사에 따른 형태를 연구하고 어휘, 문법, 맞춤법, 음역 등 모든 분야에서 히브리어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 기관에는 회장을 비롯하여 15~23명의 연구위원들이 있다. 이들은 모든 시대의 히브리어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연구하고 1년에 다섯 차례 전체 모임을 가지며 히브리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이들은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어형 변화, 외래어(철자법, 발음, 모음 등), 구두법, 철자법, 음역 등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히브리어 단어를 만드는 일이다. 특정한 직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지양하고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에 우선권을 둔다. 특별한 제안을 추천받기도 한다. 우선 역사적으로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단어를 고려한다. 따라서 많은 단어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단어를 재사용하며 때로는 원래의 의미에서 약간 변형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의 견해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중성의 객관적인 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어렵다. 많은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지만 전문적인 용어들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단어가 일상용어로 사용되기까지는 때때로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보(메다)’라는 단어는 1959년에 심리학 용어로 만들어졌는데 1990년대 초에서야 일상용어가 되었다.

또한 히브리어아카데미가 하는 일 중 하나는 외래어를 결정하는 것이다. 차용된 외래어가 얼마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언제 히브리어 단어로 대체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결정은 그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가, 히브리어 화자들이 발음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그 단어가 동사와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가, 문화적인 현상(음식의 이름과 같은)에 스며들어 있는가, 히브리어 대치어가 얼마나 편리하며 흥미가 있으며 적절한가 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히브리어 대치어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균형은 중요하다. 아카데미에서 결정한 단어가 할지라도 대중 사이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 ‘토마토’라는 단어는 19세기 유럽에서 ‘사랑의 사과’라 불려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중은 ‘구애하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아가브’를 사용하여 ‘아그바니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당시 언어협회 회장이었던 벤예후다는 그 단어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여겨 다른 단어를 제시했지만 제시된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아그바니야’가 오늘날까지 사용된다. 따라서 아카데미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각 단어에 대해 개별적으로 토의하고 대중의 반응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히브리어 단어를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학계와 언어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과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한다.

4. 맺음말

이스라엘은 다중 언어 사회임에도 단일 언어를 추구하는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특이한 국가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은 이스라엘의 공용어인 히브리어와 아랍어 사이의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듯하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려할 때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언어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영국 위임 통치 시기부터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히

브리어뿐 아니라 아랍어도 이스라엘의 공용어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부인하고 단일 언어 국가 체계로 삼으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회의 두 가지 모습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으려 한다. 먼저는 유대인 정통과 종교인들이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종교에서만 찾으려 하고 성서에 기록된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이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군복무도 거부한다. 또한 그들은 히브리어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용어에서 아랍어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모습은, ‘네베살롬(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라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두 도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사이에 있다. 마을은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모든 재산을 공유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이다. 유대인과 아랍인 구분 없이 ‘이스라엘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그 마을 주민들은 히브리어와 아랍어 모두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체계에 있다. 학교에서도 히브리어와 아랍어가 균등하게 교육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사람이므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언어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